

**겨자씨를 뿌리는 사람들**  
(주일학교를 사랑하는 이정경 로사리아, 유진경 수산나, 최혜영 리더아가 연구하고 정리합니다.)

그림 · 최유리\_울리안나

※그림 자료는 홈페이지(<http://didache.eduseoul.or.kr>) 자료방에서 내려 받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학습목표

묵주기도 성월의 유래와 의미를 알고 묵주기도에 담긴 '신비'를 묵상하며 기도할 수 있다.

- ① 도입, 전개, 정리의 각각 방법은 다음과 같이 활용할 수 있습니다.  
유치부, 초등부 저학년 : 도입1 ▷ 전개1 ▷ 정리1  
초등부 고학년 : 도입2 ▷ 전개2 ▷ 정리2  
중고등부 : 도입3 ▷ 전개3 ▷ 정리3
- ② 교사의 수업 목표와 전개 방법에 따라 각각의 방법을 혼합하여 사용하셔도 됩니다.

### 도입1

기도는 하나님과 이야기하며 그분의 이야기를 듣고 내 마음을 보여 드리는 것이다. 교사는 아이들에게 기도를 해 본 적 있는지, 있다면 무엇 때문에 했는지 이야기 들어 본다.

준비물 : 주머니, 묵주

※교사는 미리 주머니에 묵주를 넣어서 준비한다.

교사는 아이들에게 비밀 주머니 속에 손을 넣어 안에 있는 것을 만져 본 후, 무엇인지 머릿속으로 그려 보게 하고 생각한 것을 이야기하게 한다.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은 교사는 주머니에서 묵주를 꺼내 보여 주고, 이것이 무엇이며 어디에 사용하는 물건인지 설명해 준다.

“이것은 '묵주' 예인. 이것을 사용해서 하는 '묵주기도'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으로 당신을 온전히 용서하신 성모님과 함께 우리를 위해 인간이 되시고 기꺼이 고통과 죽음을 맞으신 예수님의 생애를 묵상하는 기도예인. 성모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대답을 듣는다.) 그래요. 예수님의 어머니세요. 그러니 성모님과 함께 묵주기도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더 귀 기울여 주실 거예요”

### 도입2

#### 작업-연상 장면 모래 그림 그리기

준비물 : 색모래, 풀, 도화지, 색연필

교사는 아이들에게 묵주기도의 유래와 묵주기도 성월의 역사에 대해 이야기해 준다.

#### <묵주기도의 유래>

- ① 옛날에 사막에서 살면서 기도하는 수도자들이 있었다. 구슬을 헤아리면서 하는 묵주기도는 원래 그 수도자들이 시작했는데, 묵주를 돌리면서 기도 횟수도 세고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기도 했다.
- ② 도미니코 성인은 성모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깊이 사랑했다. 언제나 등글게 엮은 구슬을 헤아리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며 성모님과 함께 기도를 드렸다.

#### <묵주기도 성월의 역사>

16세기, 교회가 분열된 틈을 타 터키의 이슬람교도들이 로마를 정복하기 위해 침공해 왔다. 1571년 10월 7일 그리스도교 연합군은 묵주기도를 바치며 전쟁터에 나갔고 코린토만의 레판토에서 승리했다. 이를 기념하기 위해 비오 5세는 해마다 10월 7일을 로사리오 축일로 정하고, 교황 레오 13세는 로사리오 축일이 있는 10월을 묵주기도 성월로 정했다.

묵주기도의 유래와 묵주기도 성월의 역사를 듣고 연상되는 장면을 색모래로 그릴 수 있게 지도한다.

작업이 끝나면 자신의 그림이 어떤 장면인지 발표하고 느낌을 나눈다.



### 도입3

#### 나눔

우리는 어떤 자세로 묵주기도를 드리는지 돌아보고 이야기를 나눠 본다.  
(예-집중을 잘하지 못한다, 묵주알 개수에 연연해 어떤 내용인지 묵상하기 어렵다 등)

묵주기도는 그리스도의 '신비'를 묵상하는 기도이다. 신비란 인간인 우리로서는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 진리'를 뜻하기도 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져 있는 하느님의 계획'을 의미하기도 한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 주신 활동과 사건' 자체를 의미하기도 한다. 우리는 묵주기도를 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 주신 그 활동과 사건에 대한 의미를 성찰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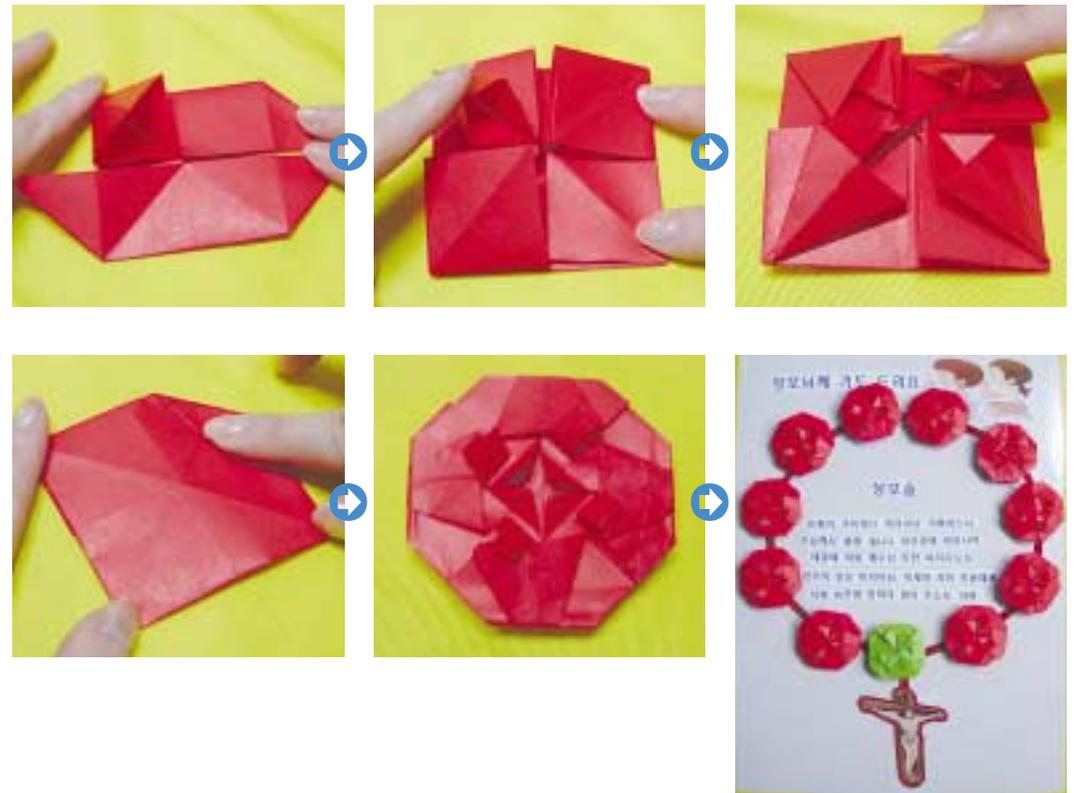
### 전개1

묵주를 '로사리오'라고 부르기도 했는데, 이것은 '장미', '장미 꽃다발'이라는 뜻이므로 예수님께 장미 꽃다발을 바치는 마음으로 묵주기도를 드려야 한다고 이야기한다. 도입1의 주머니에서 꺼낸 묵주를 아이들에게 보여 주며 관찰할 시간을 주고, 장미를 접어 도화지에 붙여서 1단 묵주를 만들어 본다.

#### 작업-장미 한 다발을 선물해요

준비물 : 색종이, 두꺼운 도화지, 크레파스 또는 색연필

- ① 두꺼운 도화지 아랫부분에 십자가를 그리거나 만들어 붙여 둔다.
- ② 아래 방법대로 장미를 10개 접어 십자가 위쪽으로 동그랗게 붙인다.



### 전개2

#### 작업-묵주 팔찌 만들기

준비물 : 구슬, 낚시줄, 가위 등



전개3

목주기도의 신비 묵상

준비물 : 성경, 성화

환희의 신비

각 단을 묵상하기 전에 각각의 성화를 보여 주고, 어떤 장면인지 이야기 나눈다.

1단 마리아께서 예수님을 잉태하심을 묵상합니다. (루카 1, 26-38 참조)

묵상 :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구원 사업을 완성하고자 외아들을 보내기로 하시고, 마리아를 협조자로 선택하셨다. 마리아께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고 대답한 그 순간에 하나님의 외아들은 이미 사람이 되신 것이다. 그러므로 강생의 신비는 예수님 탄생의 때가 아니라 예수님 잉태의 순간에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베로네스, 성모 영보

2단 마리아께서 엘리사벳을 찾아보심을 묵상합니다. (루카 1, 39-45 참조)

묵상 : 마리아께서는 친척 엘리사벳이 아기를 가진 지 여섯 달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엘리사벳을 찾아가셨다. 4, 5일이나 걸리는 먼 길을 혼자 여행하신 마리아는 엘리사벳의 집에서 석 달 동안 머무르시며 집안일과 아기의 탄생 준비를 도와 주셨다.



틴토레토, 방문

가

가

가?

가

가?

가?

3단 마리아께서 예수님을 낳으심을 묵상합니다. (루카 2, 1-20 참조)

묵상 : 무한히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유한한 인간이 되셨다. ‘영원’이 시간 안에 들어오셨고, 전능하신 분이 힘없는 모습으로 오셨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는가? 이것이야말로 하나님 사랑의 신비라고 할 수 있다.



케르트겐, 성탄

가?

가?

4단 마리아께서 예수님을 성전에 바치심을 묵상합니다. (루카 2, 22-38 참조)

묵상 :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인류 구원을 위해 참 제물이 되시기 위함이었다. 그분은 세상에 태어나실 때부터 이미 하나님께 봉헌되었으나, 성모님께서서는 율법에 따라 공식적으로 성전에서 봉헌하셨다. 아기 예수님은 인류 구원 사명을 받아 구세주로서 축성을 받으시고 파견되었다.



틴토레토, 그리스도 봉헌

가 가

가?

가?

5단 마리아께서 잃으셨던 예수님을 성전에서 찾으심을 묵상합니다. (루카 2, 41-52 참조)

묵상 : 우리도 마리아와 요셉처럼 예수님을 잃고, 찾아 헤매고, 다시 찾아내고, 그분과 일치하고, 이를 반복하곤 한다. 늘 함께하시는 예수님을 마음으로 느끼고, 모든 것을 그분께 의탁할 수 있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필요하다.



베르나르도 오를리, 박사들 가운데 예수님

정리1

묵주기도를 노래로 바쳐요

준비물 : 노래 악보

다음 노래를 함께 부르며, 묵주기도를 좀 더 가깝게 느낄 수 있게 지도한다.

묵주

심경훈 작사/작곡

한알 한알 돌리며 우리 의마음 전해 요

한알 한알 돌리며 성모님의 사랑 느껴 요

한송이 장미꽃을 피우듯 우리 의 마음도 열 어 봐요

열송이 장미다발 바치듯 사랑담긴 기도해봐 요

매일매일 드리는 묵주기도 성모님께 바쳐 요

정리2

묵주기도를 드릴 때는 마음을 집중하여 예수님의 생애를 잘 묵상하며 기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한다. 묵주기도하는 방법을 설명해 주고 마침 기도로 바친다.



- ① 성호경, 사도신경
- ② 주님의 기도
- ③ 성모송 3번
- ④ 영광송, 구원송, 신비1단, 주님의 기도
- ⑤ 성모송 10번
- ⑥ 영광송, 구원송, 신비2단, 주님의 기도
- ⑦ 성모송 10번
- ⑧ 영광송, 구원송, 신비3단, 주님의 기도
- ⑨ 성모송 10번
- ⑩ 영광송, 구원송, 신비4단, 주님의 기도
- ⑪ 성모송 10번
- ⑫ 영광송, 구원송, 신비5단, 주님의 기도
- ⑬ 성모송 10번
- ⑭ 영광송, 구원송, 성호경

### 정리3

전개3에서 환희의 신비를 묵상하고 무엇을 느꼈는지 나누 뒤, 각자의 삶을 돌아본다.

**돌아볼 것 하나** 마리아와 같이 하느님의 뜻에 순명하기 위하여 무엇을 했는가?

**돌아볼 것 둘** 그리스도인이면서 학생인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성심성의껏 했는가?

**돌아볼 것 셋** 순수한 마음으로 베풀었는가?

**돌아볼 것 넷** 우리들에게 주어진 삶에 감사했는가?

**돌아볼 것 다섯** 잘못을 저지른 사람을 용서했는가?

나눔이 끝나면 평소 우리들이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을 정하고 기도와 함께 봉헌할 수 있게 이끈다.

### 예외

#### 성모님의 방

친국에 새로 온 영혼이 베드로 성인의 인도를 받아 자신의 집으로 가는 길이었다. 그들은 여러 개의 방으로 이루어진 황금 궁전으로 들어갔다.

베드로 성인이 말했다.

“이곳에는 지상 사람들의 청원을 접수하는 방이 여럿 있습니다.”

영혼은 사람들의 청을 나르는 많은 천사들을 보면서, 얼마나 분주한지 알 수 있었다.

특히 궁전의 모퉁이에 자리 잡은 커다란 방 앞에 이르자, 지금까지 본 천사들보다 몇 배나 많은 천사들이 지상 사람들의 청을 나르고 있었다.

영혼이 말했다.

“누구의 방인지 몰라도 가장 인기 있는 성인인 것 같군요.”

베드로 성인이 빙그레 웃으며 말했다.

“그래요. 이 방 주인은 지상 사람들의 영원한 희망입니다. 그들은 일 년 내내 이분께 도움을 청하니까요.”

“이 방 주인은 누군가요?”

영혼이 베드로 성인에게 물었다.

“성모님이요.”

-『지혜의 발자취』(앤드루 마리아 · 박웅희, 성바오로)